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한다(렘 강해 설교 34)

성경말씀: 렘39:1-18

예레미야 대언자는 BC 628년부터 41년 동안 말씀을 대언함, 대언의 내용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포로로 사로잡아간다.” 1-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통치 제 9년 10월에 마지막 포위가 시작되어 18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11년 4월 9일, 드디어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빵이 떨어져서 도시가 함락되자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휘파하고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 성전의 모든 보석과 금속을 다 가지고 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BC 1048년에 예루살렘 탈취, 462년 만에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감, 그때부터 1968년까지 2,5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교도들의 지배

애4:1-22, 성전의 멸망(1), 시온의 아이들이 부서짐(2), 젓먹이와 아이들을 붙잡히여기지 않음(3-4), 맛있게 먹고 화려하게 입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음(5), 나사르 사람들의 얼굴이 숫갈이 검게 변함(7-8),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9), 아이들을 삶아 먹음(10), 시온이 불에 타버림(11-12), 대언자와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 백성이 눈먼 자 같이 도시에서 헤매고 다님(13-14), 곳곳에서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백성을 추격함(19),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음(20).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40년간 외쳤지만 결국 그의 눈앞에서 이런 악학 상황이 발생하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3:48-51,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한다> 렘3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과 개개인의 심판을 살펴보려 한다.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의 집, 쇠 용광로에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다. 하나님의 증언: 출19:3-4,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양, 죽음의 천사, 유월절, 홍해를 건넌, 만나를 먹음, 특별한 보물이 된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신7:6-7, 수가 많거나 재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주변 국가들처럼 우상숭배하면 안 되었다. 십계명의 율법이 요구하는 첫째 명령: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신6:4-5의 쉘마, 그러나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는 우상 숭배 역사, 재판관(사사)들의 시대, 왕들의 시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때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율법 책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면서 주신 안식일은 지켰으나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년의 목적: 땅이 쉬어야 열매를 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동안 땅이 그 동안 안식하지 못한 것을 다 회복함(대하6:21).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창세기 6장, 노아 당시에 사악한 일이 땅에 범람할 때 하나님은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심
사람들은 믿지 않고 대언자를 멸시하였으나 120년이 차매 온 땅을 뒤덮은 홍수가 임함.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저들을 유황불로 심판함
이집트의 파라오: 참고 참으신다. 10가지 재앙까지 참으신다. 결국 장자의 죽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언자 모세를 거역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내린다.

재판관 시대, 왕들의 시대: 참고 참으신다. 그리고는 결국 민족에게 나라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특히 교회).

36년 일제 식민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북한 공산당의 6.25 남침, 극도의 혼란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위 무역국가로 서게 되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민족을 세워 주셨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다.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과 정비례한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WCC를 연다. 교회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통일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정신문화/세계가 바로 설 수 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조롱거리, 수치거리 믿는 자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벧전4:17).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 교회의 위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39장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온다. 시드기야, 예레미야, 에벳멜렉

(1)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우유부단한 사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불순종함. 37장,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가 몰래 그를 끌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는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거부한다. 38장, 예레미야가 또 다른 지하 감옥에 갇힌다. 시드기야가 또 와서 묻는다.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나가면 살 것입니다.”(17).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다”(19).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주변상황, 사람, 조건). 결국 심판 도시가 함락되자 왕이 몰래 도망가다가 평야 길에서 붙잡힘(4-5). 바빌론 왕이 그가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교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우유부단한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 오늘 예배당 문턱을 밟고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2) 예레미야: 믿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심판 때에 그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었다(11-14).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렘1:18-19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원하신다.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떨 줄 아는 성도, 눈물 계21:3-4

(3) 에벳멜렉: 38장에 보면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 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구해 준 이 사람 역시 심판 날에 전져주시고 공포의 때에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17-18).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 찬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가? 목숨을 내걸고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No! 네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18).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선한 행위를 하였고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 보답해 주셨다. 구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 믿음, 그에 상응하는 행위, 보상의 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사랑침례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보상

주님의 재림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행17:22-31):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건물에, 신전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다. 우상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사람과 짐승에게 숨을 주신다. 그분이 오대양 육대주에 사람들을 흠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31절 자세히 설명; 세상 끝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벧후3:9).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히9:27). 당신은 휴거될 수 있는가? 믿음, 행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